

연길공항 연 166만명 고객 수송... 신기록!

국제여행객량 비률 전국 공항 1위



연변의 한국 관광객 동기 대비 90% 증가

우리 나라가 11월 8일부터 한국의 일반관광 소지자에 비자 면제 정책을 실시하면서 연변의 관광업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많은 한국 여행객들이 이 기회를 빌어 연변에 대한 심층 관광을 시작, 연변박물관을 참관하고 장백산을 유람하는 등 행보로 유구한 역사 및 풍부한 전시품을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중화민족의 독특하고도 깊은 문화적 내포를 음미하고 있다. 문해한 데 의하면 무비자 관광방문이 시작된 지 10일만에 연길공항 통상구를 통해 출입국한 한국 국적 여행객은 지난 동기보다 90% 증가되었다.

/ 중앙 TV 방송

연길공항에 따르면 27일까지 연길공항은 연 166만명의 고객수송량을 보유했다. 이는 지난 동기보다 41.6% 증가하고 2019년도의 총량을 초과한 수치로서 역사적 신기록으로 된다.

연길공항의 고객수송량, 항공편리차량 회수 2가지 지표가 경중 상승했다. 특히 연길공항의 하루 고객수송량은 역사 기록을 4차 돌파했고 최고로 9,699명에 달하였다. 음력설 연휴 기간 8일간의 고객수송량은 연 6만 6,660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하였는가 하면 2월 고객수송량이 연 20만 9,000명으로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월까지 10개월간 국제여행객 수송량은 연 64만명으로 동북지역에서 제3위를 차지, 국제여행이 차지하는 총비율은 전국 공항 1위를 차지하였다.

점차 풍부해지는 향로망과 부단히 갱신되는 고객수송 최고치는 '동북아의 중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관광,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력원'을 적극 구축하는 연길공항의 질

기찬 활력을 보여준다.

겨울철 운행시즌 연길공항은 국내외 16개 주요 도시를 망라하는 항로망을 구축하여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출행 선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변조선족자치주 문화라지호텔비준방승관광국, 항공회사, OTA 플래트홈, 연변항공관광연맹기업과 손잡고 '온라인 + 오프라인' 이중 상호작용 방식을 채용하여 '절기의 아름다운 중국연합항공 특별생방송', '925 대홍공항' 축제 참가, 유방(滄海), 장사, 녁파 항공여행 추천소회 등 활동을 개최하여 일련의 전방위적인 홍보와 추천 활동을 통해 여행객들의 편리, 효율적인 여행에 더욱 많은 가능성을 제공하고 연변의 '항공 + 문화관광'의 심층 융합을 한층 추진하게 된다.

연길공항 관련 책임자는 "특색서비스를 계속 혁신하고 향로 네트워크를 풍부하며 하모니컬 절차를 최적화하여 비철관광 열기를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데 힘을 보낼 것"이라고 표했다.

/ 연길뉴스넷

'장백산인삼' 세계림목업대회서 인기

길림성, 인삼산업을 길림성의 고품질 발전의 상징적 시범산업으로 만들어간다

지난 주말 광서 남녕시에서 2일간 있던 제2회 세계림목업대회에서 길림성 '장백산인삼' 전시관이 인기를 끌었다. 전 성 24개 기업, 3개 과학연구기구가 대회에 참가하여 산삼, 건삼, 인삼식품, 인삼보건식품, 인삼화장품, 인삼일용품 등 300여가지 인삼 명품(名优) 제품을 전시 판매하였다. '장백산인삼'을 주제로 한 전시 모식은 길림성이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하이라이트로서 전국 각지에서 온 바이어와 관람자들의 광범한 관심과 높은 찬양을 받았다.

'장백산인삼' 전시관은 길림성의 아름다운 산경지를 조형으로 하고 드넓은 삼림과 장백산의 천년적설을 상징하는 '록색', '백색'을 주제로 인삼지식, 인삼문화 등 원소를 결합시켜 그림, 영상, 현장해설 등 형식을 통해 길림성 '장백산인삼'의 유구한 역사, 두터운 바탕과 무한한 상업 기회를 전면적으로 전시함으로써 인삼의 매력으로 우리 성이 팔방의 손님들을 성심껏 초청하는 '삼정'(參情)을 표달하였다.

전시관에는 전문가 설명, 중의의진, 인삼 무형문화 전시, 인삼캐기 시뮬레이션 등 6대 체험구역을 설치했는데 관람자들은 현장 설명을 듣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인삼은 약품일 뿐만 아니라 식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중의의진 체험구는 길림대학, 길림농업대학, 장춘중의약대학 등의 인삼전문가, 교수를 초청하여 현장에서 인삼 약용의 약리와 효능을 설명하고 의진을 진행했는데 관람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인기가 높았다.

길림성림업초원국 부국장 리둥우의 소개에 따르면 이번 세계림목업대회에서 성립초원국은 전문적으로 '장백산인삼' 주제 전시관을 개설하고 세계림목업대회와 같은 큰 플랫폼과 장구를 빌어 '장백산인삼'의 역사문화, 신기한 효능과 우수한 제품을 집중적으로 선전, 소개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길림성 '장백산인삼'을 료해하고 길림성을 료해하도록 했다.

길림성은 당면 인삼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중점 전문 프로젝트로 배치하고 인삼산업 전담계획을 둘러싸고 인삼시장의 신용체계, 인삼의 규범화 재배체계, 인삼 정밀 가공 산업체계, 인삼 브랜드 마케팅체계를 건전화하는 등 전 성의 힘을 모아 인삼산업을 길림성 고품질 발전의 상징적 시범산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 길림일보

[료식시장 관찰]

양생차 및 약선 등 중의약 료식업과 손잡는다

오늘날 음식과 전통 중의약의 융합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많은 전통 명가 중약집, 중의원에서 중약 차 대용 음료나 약선을 내놓고 있다. 북경 백담사약국은 절기에 맞추어 비파와 배즙을 커피에 융합해 배비파파메(拿铁)를 출시했는가 하면 천진중의약대학제1부속병원은 황기양생빵 등 중약빵을 내놓았고 일부 식당은 고객의 다양한 체질과 수요에 따라 당귀양고기탕, 구기자찜닭 등 약선을 출시했다...

중국중의과학원서원병원 미병치료센터 주임 장진은 "중의약 + 료식'의 혁신 융합은 새로운 조류를 일으켜 많은 소비자를 끌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사람들의 건강 의식이 부단히 증강되고 있음을 구현한다. 이 조류는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중의약 지식과 양생 리념을 리해하도록 이끈다."고 표했다. 국가 중식 조리 고급기술자이며 약선사인 호화봉은 "과거에 우리는 약선의 소비층이 중장년을 위주라고 생각했지만 현재는 소비자층이 젊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95'후에서 '00'후의 소비 증가 속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의 관심

윤폐(润肺) 음료, 평간(平肝) 청음료, 보양삼맥(参麦) 음료... 휴대폰으로 절강성중의원의 인터넷병원 애플릿에 들어가 보면 많은 중의약 음료라 눈에 들어온다. 상품을 선택하고 설문지를 작성해 구매자의 체질 적합여부에 대해 시스템이 확인한 뒤 주문을 클릭하면 관련 음료가 집으로 배달된다.

상기의 차 대용 티백(茶包)을 컵에 넣고 끓여 물을 부어 쫄면 불리면 은은한 향기가 풍겨난다. 처음에는 신선하게 느껴졌고 인터넷 주문도 편리하니 시험해봤다는 항주 모 회사의 직원 정정은 최근 보양삼맥 10점을 주문했다며 "한잔에 4원 밖에 안하는데 마셔 보니 식감이 괜찮았습니다. 백화점의 왕홍 중약 음료와 대비해보면 전문병원에서 온 제품이라서 더 믿음직한 점도 있어요."라고 감사를 밝혔다.

5월에 절강성중의원은 오매탕(乌梅汤)을 출시했는데 단가가 1.91원이었다. 인터넷병원에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하루 주문량이 115만점을 초과했으며 최고로 하루에 1,000만점을 돌파했다. 절강성중의원 인터넷병원 판공실 주임 염문이는 "주문자들 중



/ 사진 절강일보

20~35세의 젊은층이 80%를 초과했다."고 소개했다.

산매탕(酸梅汤) 음료와 달리 오매탕은 중약 대용 차음료로서 오매, 썬광이, 진피, 감초 등 약재로 구성되었으며 생진지갈(生津止渴), 행기개위(行气开胃)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절강성중의원 중의내과 주임 하영량은 "우리는 전통적인 오매탕 조제법에 기초하여 현대인의 수요, 계절 및 음식 특성과 결부하여 전승 혁신과 최적화 승격을 진행하였다."고 소개했다.

"현재 빨라지는 사업 절주 속에서 젊은 세대들은 건강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중의약 양생에 대한 열정도 고조되고 있다. 우리는 중약 차 대용 음료를 연구 개발할 때 이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 절강성중의원 원장 공상복은 중의약산업의 지속적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려면 중의약 양생 제품이 젊은이들의 수요에 더욱 접근해야 하며 중의약을 사용하기 좋고 맛있고 편리하게 변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 규범의 완성화

우리 나라의 약식동원 문화는 유구하다. 《황제내경》에 오곡은 양생의 근본이며 과일, 육류, 남새 등은 보조적 보충제라고 언급하였다. "당귀생강양고기탕"도 동한의 저명한 의학자 장중경이 저술한 《금결요약》에서 전해 내려온 중약 처방이자 약식이다. "음식 자체는 치료와 보양의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중의약 + 료식'의 혁신은 전통 약식동원 문화의 전승과 발전이다." 장진은 일상생활에서 중약과 식재료의 결합은 매우 흔하며 일례로 가정 요리 찜닭, 찜고기에 계피, 두구 등을 자주 넣는 것도 그런 도리라고 풀이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식품에 첨가할 수

있는 중약재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생산 경영하는 식품에는 약품을 첨가할 수 없으나 전통에 따라 식품이자 중약재인 물질은 첨가할 수 있다.

2021년 우리 나라는 약식동원 물질의 동태 조정과 관리 규범을 명확히 하였으며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대중건강을 수호하는 것을 취지로 법에 의거하고 과학적이며 공개적인 원칙에 따라 식약물질 목록을 제정하고 적시적으로 갱신한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까지 식약물질 목록중의 중약재는 정향, 산약, 썬광이, 구기자, 결명자 등 102종에 달한다.

'중약 자체에 약성이 있어 증상에 맞는 약을 쓰는 것을 중요시하는데 음료 및 음식에 중약재를 넣으면 보양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소비자들이 의구심을 표한다.

호화봉은 음식물의 속성이 다르기에 일반적인 음식은 모두 일정한 효능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레를 들면 흔히 볼수 있는 녹두탕이나 녹두죽은 사실 전형적인 약선으로서 열, 더위를 식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일부 목을 축이는 차 대용 음료도 목의 불편한 증상을 일정하게 완화시킬 수 있다.

"중의약 관점에서 볼 때 중의약 료식 혁신 제품은 어느 정도 양생 효능을 가지고 있으나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된다."

북경중의약대학 인문학원 법문학부 교수 등용은 중약의 효능은 약재 자체의 품질, 약률 배합, 조제 수법 등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중의약 료식 혁신 제품중의 중약재는 합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제작 공정이 전통 중약과 다르며 그 효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중약에 대한 반응도 차이가 있

을 수 있어 이를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약선 서비스를 전개하여 중의약 문화를 한층 더 전파

저녁 무렵 시민 리봉은 산동성 유방시 규문구 연도행림 식양주방에 와서 석곡(石斛)면 한그릇을 만족스럽게 먹고 간다. 약선인 석곡면은 식감이 담백하고 위를 튼튼하게 한다. 볶음에 다 려엿, 메밀 등을 원료로 하여 지방흡수를 줄인다는 이 중의 약선은 한그릇에 22원인데 리봉은 가게의 단골손님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 산동성에는 도합 13만여개의 중의 약생 관련 기업이 있으며 중의 약선 식당도 약 200개 있다.

약선산업의 과학 발전을 지도하기 위하여 산동성은 <산동성 중의약산업 발전계획(2022-2025년)>을 출범하여 약선 전통문화를 깊이있게 발굴하고 산동 약재 우세와 지방 특색 식습관을 결부하여 약선이 양생가정, 사회구역, 의료건강양생기구에 진입하도록 추진할 것을 제기하였다. 한편 산동성내 100여개 현대 이상 중의 의료기구 영양식당에서 약선 서비스를 전개하였는데 이는 관련 시장의 근 80%를 차지한다.

'중의약 + 료식'의 더욱 좋은 융합 혁신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 공으로서 전문 인재대오 건설을 촉진하고 시장의 규범화 감독관리를 보완하며 중의약 문화 보급을 강화하는 등 면에서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된다.

약선산업 인재 비축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산동성위생건강위원회는 연속 4년간 산동성약선대회를 개최했다. 경조직위원회는 또 200여명의 시민을 초청하여 평가에 참여시키고 현장에서 약선 미식을 맛보게 하며 그들에게 중의 약선의 효능을 홍보 보급하여 더욱 많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중의 약선을 시도하도록 이끌었다.

산동성위생건강위원회 중의약산업 발전처 처장 왕순은 산동성은 '백미 천선이 만가에 들어가기'(百味千膳进万家)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약식동원 중의약재를 지방 료리, 특색 미식과 주된 체질 특징과 결합하여 양생 약식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신화넷

류하현

림목종기지 황자나무, 겨피나무 종자원 구축

우리 성의 진귀한 림목 품종을 더욱 잘 육성하고 생태 건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류하현 오두구 국가급 일본락엽송림종기지는 올해 년초에 기술일군들로 우생 나무까지 채집소조를 구성하였다. 채집소조는 우리 성 홍석삼림공업국 구역, 교하, 서란, 구대, 료원, 림강, 휘남, 동풍, 장백, 화룡, 둔화, 정우, 집안, 류하 등 도합 21개의 채집지에서 황자나무(黄菠萝), 겨피나무(槭櫟) 가지 채집을 진행했다. 이로써 황자나무 9,353개 및 가보 79개, 겨피나무까지 8,500개 및 가보 49개의 분포 및 범위를 집중하였는데 이는 새롭게 황자나무, 겨피나무 종지자원을 구축하기 위하여 충분한 준비를 한 것으로 된다.

이 기지는 올봄부터 황자나무 종지자원 수집구 48무를 새로 건설

하고 황자나무 종원(+) 가보 자대(子代) 측정림 45무를 새로 건설하여 황자나무를 집중함으로써 5,000주의 새싹을 확보했다. 또한 겨피나무 종지자원 수집구 45무를 신축하고 겨피나무 점목도 5,500주를 확보하여 황자나무, 겨피나무 종자원을 건설하는 데 생산재료 및 과학수치를 제공해 우리 성의 황자나무, 겨피나무 종자원의 공백을 메웠다.

류하현 오두구 국가급 일본락엽송림종기지는 1984년에 건설되기 시작했으며 2009년에 국가림업국으로부터 국가급 림목종기지로 명명받았다. 재배 수종은 일본락엽송으로서 총면적이 3,960무 된다. 그중 일본락엽송이 2,224무, 홍송 모수림이 1,700무, 황자나무, 겨피나무 번식 묘포가 36무이다.

/ 길림일보

우리 성 청년인재 유치 및 초빙 계열 활동 진행

길림성인력자원사회보장처, 길림성교육청이 주최하고 길림성 인재교류개발센터, 길림성대학교 졸업생취업지도센터가 연합으로 주관한 청년인재 길림성 취업 및 초빙 계열 활동이 27일 성인재시장에서 가동되었다.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하는 형식으로 펼쳐졌는데 29일까지 연속 3차례의 현장 초빙활동을 가졌다.

매지의 현장 초빙활동에 참가한 기업은 100개로 중량기가강유한 회사, 수정약업그룹주식유한회사, 길림성통용기계그룹유한책임회사 등 많은 유명 기업들이 포함, 인사전문일군, 재무주관일군, 구매전문일군, 공급사슬경영일군, 운수운전자 등 각종 관리 및 기술직 2,000여명을 제공했다.

길림성인재교류개발센터 시장 지도처 부처장 단영은 "이번 행사에 성내의 관장은 기업과 일 자리를 염선하여 내놓았다. 해당 료임 대우, 초빙 일터의 발전 방향은 대학졸업생들에게 매우 적합하다. 성내의 대학졸업생들이 우리 성에 남아 취업, 창업하고 자신의 발전에 적합한 무대를 선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표했다.

/ 길림일보

"나는 고향 장춘에서 취업하는 것을 더 원합니다. 성에서 졸업생을 대상으로 내놓은 정책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향 건설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 생각합니다." 초빙회 현장의 여러 부스를 돌아본 후 장춘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졸업생 왕희숙은 길림성에서의 발전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행사장에서 졸업생들은 기대에 부풀어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했다. 장춘장광정보유한회사는 여러개의 량질의 일자리로 많은 구직자들에게 높은 흡인력을 보였다. 회사 총리 보조 진성길은 기자에게 "더 많은 리공과 및 광학계 졸업생들이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성에 남아 취업하고 함께 발전해가기를 바란다."고 표했다.

이번 행사는 또 '96885 길림인력자원 온라인 플랫폼', 길림인재 사이트, 청년인재 취업 애플릿에 온라인 활동 전문구역을 개통하고 대학졸업생 인재와 기업의 연결 고리 플랫폼을 충분히 구축하여 더욱 많은 대학졸업생들이 길림성에 남고 길림성에 와서 취업하도록 돕는다는 목표를 세웠다.